

탈북자들을 통하여 본 북한주민 의식 조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¹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²
전우택¹ · 홍창형¹ · 엄진섭²

Survey of the North Korean People's Social Consciousness-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Woo Taek Jeon, MD¹, Chang Hyung Hong, MD¹ and Jin Sup Eom, MA²

Department of Psychiatry,¹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Department of Psychology,² College of Social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eongju, Korea

Objectives : North Korean people's thought and opinions on their contry, society, and economy were studied through North Korean defectors.

Methods : At Hanawon, 163 defectors were surveyed with 2 questionnaires in May 2002.

Results : North Koreans believe that socialism it was a right choice for North Korea.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economic reality, however admitted sense of frustration. They think that the communist value system and the communal consciousness have been shrinking gradually, and their attitude to South Korea was one of ambivalence. Peoples views are different according to age and institutional education they received.

Conclusion : For the day of unification, we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put in more effort for building a common nationalistic consciousness. Second, reasonable criticism against communism and the advantages of alternative systems which are expected to be accepted by North Koreans through education after unification, need to be prepared. Third,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conflicts and the frustration of North Korean people after unification are anticipated and their solutions must be saught after. Fourth, continuos studies for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people'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t's change is needed.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3; 42(5):631-643)

KEY WORDS : North Korea · North Korean defectors · Korean unification · Social consciousness.

서 론

북한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가 없을 만큼 철저히 전체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¹⁻⁵⁾ 따라서 그러한 체제 가운데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그들의 나라와 지도자, 체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고 솔직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 및 사회의식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6,7)}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의식을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탈북자들이다.⁸⁻¹⁰⁾ 그들은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온, 그래서 탈북 전까지는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에게 전체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직접 질문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탈북자들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2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북한 전체 주민 중 북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목숨 걸고 탈출한 극소수의 사람들이기에 북한 사

접수일자 : 2003년 1월 6일 / 심사완료 : 2003년 7월 21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WooTaek Jeo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 +82.2-361-5480, Fax : +82.2-313-0891
E-mail : wtjeon@yumc.yonsei.ac.kr

회에 대하여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한 응답은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의식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탈북자들이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알고 대답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론 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솔직한 의견이나 생각이 조사되고 발표되는 체제가 아니다. 또한 북한에서 자유로운 여행, 자유로운 집회와 토론 등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협소한 지역사회, 학교, 직장,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만 하여 매우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체된 사회이다.¹¹⁾ 그리고 자신과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들의 생활이나 생각을 알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한점을 가진다.

셋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 조사는 현 시점의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기보다는 몇 년 전의 상황을 알아보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바로 남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에서 3~4년의 기간을 보낸 다음에 들어온다. 따라서 이들이 응답한 내용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던 당시를 기준으로 응답하고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은 북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북한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기에 비교적 최근의 북한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수는 있겠다.

넷째, 탈북자들은 민감한 정치적 주제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북한에서의 오랜 생활 경험으로 인하여 남한에서는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남한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조심스러워하고,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민감해 보이는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¹²⁾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에게 간접 및 직접 설문을 하여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사회, 경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려고 한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국가, 사회, 경제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조사하려고 한다. 셋째, 북한주민들이 가지는 국가, 사회, 경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에 고려되어야 할 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2002년 5월,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하나원에 입소하여 있는 15세 이상의 모든 163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들어왔을 때 약 2개월 동안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집단으로 받는 시설이다.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구두로 연구에 동의함을 확인받았다. 연구에 동의한 163명 전원이 설문문에 응답하였다.

탈북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1) 설문 1부는 응답자가 북한 내의 한 특정 인물을 머리 속에 정하여 그 사람이 설문에 대하여 응답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을 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즉 탈북자가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어 그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을 한 명 설정하게 하고 나서,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무엇이든 대답할 것인가를 응답해 달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전체 북한사람들의 의식을 질문할 때 생길 수 있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응답자 자신의 생각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응답자가 머리 속에 상정한 북한 사람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특징, 즉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당원 여부 등을 가지고 인구학적 특징 등에 따른 좀더 세분화된 통계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응답자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직접 대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부정확해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그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야 하였다.

2) 설문 2부는 설문 1부와 같은 일종의 간접 설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탈북자들이 생각하기에 일반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직접 질문한 것이다. 설문 2부는 두 가지 질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북한에서 있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의견을 제시한 후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몇 %가 각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었다. 둘째는 특정한 내용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가 있는 보기를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들 역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를 가지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하였다.

설문지 구성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 보완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설문지가 고안되었다. 설문지는 1, 2부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은 탈북자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국가, 사회, 경제의식을 간접 및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설문 1부는 탈북자가 상정한 북한 주민의 국가, 사회, 경제의식에 대한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2부는 탈북자의 국가, 사회, 경제의식에 대한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탈북자가 상정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구학적 특징과 응답자의 실제 인구학적 특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통계 분석

각 설문 항목에 따라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응답자의 숫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인구학적 특징과 설문 항목 간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Chi squar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10$ 및 $\alpha=.05$ 이하인 것으로 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Window용 SAS 8.1을 이용하였다.

결 과

응답 탈북자 및 응답 탈북자가 상정한 북한주민의 인구학적 특징 (Table 1)

본 설문에 응한 탈북자 163명의 실제 인구학적 특징은

Table 1. 응답 탈북자의 인구학적 특징

		실제 응답자		실제 응답자가 상정한 가상의 응답자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성 별	남 자	85	52.1	77	47.2
	여 자	78	47.9	86	52.8
연 령	10-19살	16	9.8	10	6.1
	20-29살	58	35.6	45	27.6
	30-39살	49	30.1	45	27.6
	40-49살	30	18.4	40	24.5
	50-59살	7	4.3	17	10.4
	60살 이상	2	1.2	5	3.1
	무응답	1	0.6	1	0.6
학 령	고등중학 졸업	134	82.2	85	52.1
	전문대학 졸업	11	6.7	35	21.5
	대학교 졸업	15	19.2	40	24.5
	무응답	3	1.8	3	1.8
	당 원	당 원	22	13.5	57
	비당원	134	82.2	104	63.8
	무응답	7	4.3	2	1.2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85명(52.1%) 여자가 78명(47.9%)였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6명(9.8%), 20대 58명(35.6%), 30대 49명(30.1%), 40대 30명(18.4%), 50대 7명(4.3%), 60대 2명(1.2%)이었다.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이 134명(82.2%), 전문대학 졸업이 11명(6.7%), 대학교 졸업 이상이 15명(9.2%), 무응답 3명(1.8%)이었다. 북한을 탈출한 연도로 보면 96년 이전이 8명(4.9%), 97년 48명(29.4%), 98년 54명(33.1%), 99년 22명(13.5%), 2000년 9명(5.5%), 2001년 15명(9.2%), 2002년 6명(3.7%), 무응답 1명(0.6%)이었다. 남한에 들어온 연도별로 보면 2000년이 3명(1.8%), 2001년이 5명(3.1%), 2002년이 154명(94.5%), 무응답 1명(0.6%)이었다.

응답한 탈북자가 설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상정한 북한 내 특정 인물들의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총 163명의 응답 탈북자가 각각 1명씩을 상정하여 총 163명의 북한 사람들이 상정되었다. 상정된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77명(47.2%), 여자가 86명(52.8%)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0명(6.1%), 20대 45명(27.6%), 30대 45명(27.6%), 40대 40명(24.5%), 50대 17명(10.4%), 60대 5명(3.1%)이었다.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이 85명(52.1%), 전문대학 졸업이 35명(21.5%), 대학교 졸업 이상이 40명(24.5%), 무응답 3명(1.8%)이었다. 당원 여부에 있어 당원은 57명(35.0%), 비당원은 104명(63.8%), 무응답자 2명(1.2%)이었다.

이상과 같은 상정 인물들의 인구학적 특징은 응답한 탈북자 자신들의 인구학적 특징과 연령대 별로는 비슷하였고, 학력적인 측면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자들과 대학 졸업자들이 상정된 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1부 결과 (Table 2)

설문 1부는 탈북 응답자에게 가상의 북한주민을 상정하게 하고 그들이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상정된 인물이 "통제가 없어도 당의 요구대로 살 것" 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9.6%, "어느 정도 그렇다"가 23.3%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 사회에서 당의 통제가 없어지면 사회는 혼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42.9%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라도 통제 없이 당의 요구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와 교육에 순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었다.

2) 상정된 인물이 "일상생활에서 관심은 오로지 먹는 문제뿐"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54.6%, "약간

Table 2. 설문 1부 응답 결과

질문 내용	응답 (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 통제가 없는 곳에서도 당의 요구대로 생활한다	32 19.6%	38 23.3%	57 35.0%	34 20.9%	2 1.2%
2. 일상생활에서 관심은 오로지 "먹는 문제" 뿐이다	89 54.6%	33 20.2%	27 16.6%	10 6.1%	4 2.5%
3. "먹고살기"가 힘들지만, 그런 대로 지낼만 하다고 생각한다	38 23.3%	59 36.2%	31 19.0%	31 19.0%	4 2.5%
4. 북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못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115 70.6%	34 20.9%	9 5.5%	4 2.5%	1 0.6%
5. 동네주민들이 점점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25 77.9%	25 15.3%	6 3.7%	3 1.8%	2 1.2%
6. 기회만 있으면 "장마당"(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108 66.3%	33 20.2%	11 6.7%	9 5.5%	2 1.2%
7. 출신성분이 나쁘면 아무리 똑똑해도 고위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30 79.8%	16 9.8%	14 8.6%	1 0.6%	1 0.6%
8.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생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0 36.8%	47 28.8%	17 10.4%	35 21.5%	4 2.5%
9. 당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120 73.6%	31 19.0%	4 2.5%	3 1.8%	5 3.1%
10. 김일성 사망 후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 졌다고 생각한다	133 81.6%	25 15.3%	2 1.2%	2 1.2%	1 0.6%
11. 북한을 탈출할 생각이 있다	47 28.8%	52 31.9%	31 19.0%	32 19.6%	1 0.6%
12.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84 51.5%	45 27.6%	17 10.4%	17 10.4%	0 0%
13.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한다	83 50.9%	47 28.8%	19 11.7%	12 7.4%	2 1.2%
14. 남조선에 흡수통일이 되면 "남조선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14.1%	26 16.0%	45 27.6%	64 39.3%	5 3.1%
15. 중국 등 외국의 소식을 예전에 비해 자주 듣고 있다	64 39.3%	61 37.4%	25 15.3%	11 6.7%	2 1.2%

그렇다" 20.2%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의 열악한 식량 사정을 나타내 보이는 동시에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3) 상정된 인물이 "먹고살기 힘들지만 그럭저럭 지낼 만 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3.3%, "약간 그렇다" 36.2%로 전체의 59.5%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19%는 "별로 안 그렇다", 19%는 "전혀 안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이 상황을 강인하게 견디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4) 상정된 인물이 "북한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못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는 것에 91.5%가 동의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은 외국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지금 극심한 경제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상정된 인물이 "동네 주민들이 점점 더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우 그렇다" 77.9%, "약간 그렇다" 15.3%로 전체의 93.2%가 이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 사람들은 경제난과 함께 점차 더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인간상,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어쩔 수 없이 북한의 경제, 사회 체제를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6) 상정된 인물이 "기회만 있으면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66.3%, "약간 그렇다" 20.2%가 나와 전체의 86.5%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초보적인 시장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7) 상정된 인물이 “출신 성분이 나쁘면 아무리 똑똑해도 고위 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매우 그렇다” 79.8%, “약간 그렇다” 9.8%가 나왔다. 즉 응답자의 89.6%가 이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계급 출신 별 사람들의 차별이다.²⁾ 일단 출신 성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개인의 능력은 완전히 무시되는 봉건시대의 계급 차별과 같은 강력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북한 체제를 유지해 온 수단이 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의 불만이 이제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본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8) 상정된 인물이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생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6.8%, “약간 그렇다” 28.8%가 나오고 있어, 전반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이나 고위직 간부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63.5%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국가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9) 상정된 인물이 “당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73.6%, “약간 그렇다” 19.0%로 나타나 92.6%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모든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고, 민주적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응답인 동시에 일반 주민들의 당 간부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상정된 인물이 “김일성 사후에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81.6%, “약간 그렇다” 15.3%로 응답자의 96.9%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뚜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1) 상정된 인물이 “북한을 탈출할 생각이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 자신들이 탈출을 한 사람이라서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어찌되었든 일반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매우 그렇다” 28.8%, “약간 그렇다” 가 31.9%나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즉 전체의 60.7%는 기회만 되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12) 상정된 인물이 “남조선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51.5%, “약간 그렇다” 27.6%로 나타나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80% 가까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3) 상정된 인물이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매우 그렇다” 50.9%, “약간 그렇다” 28.8%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79.7%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북한이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킨 결과로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과 남한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즉 남한이 아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 국가라는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탈북자들 중 일부가 북한을 탈출한 후에 남한에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제 3국을 택하려고 하였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14) 상정된 인물이 “북한이 남조선에 흡수통일이 되면 남조선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4.1%, “약간 그렇다” 16.0%로 30.1%가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이에 대한 북한 체제의 선전과 교육에 비한다면 큰 수치는 아니었으나,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통일에 있어 뚜렷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 상정된 인물이 “중국 등 외국의 소식을 예전에 비하여 자주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9.3%, “약간 그렇다” 37.4% 정도 나오고 있어 76.7%의 사람들이 과거에 비하면 더 외국 소식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좀더 많이 외국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이지,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외국 소식을 직접 듣고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설문 2부의 결과(Table 3)

설문 2부는 탈북 응답자에게 몇 %의 북한 주민들은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본 연구의 응답자들에 의하면 일반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선택은 옳았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응답(59.5%)이, “북한은 사회주의를 잘못 선택하였으며, 오랫동안 독재체제에서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응답(38.0%)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패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 것이었다.

Table 3. 설문 2부 응답 결과

질문 내용	응답평균 (%)
1.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 및 사회 현실에 대해 북한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가질까요?	
1) 갑: "우리는 사회주의를 잘못 선택했으며, 오래 동안 독재체제에서 고생하며 살아왔다"	38.0%
2) 을: "우리가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은 옳았다. 단지 최근 몇 년 동안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뿐이다."	59.5%
3) 무응답 (Missing)	2.5%
2. 북한 사람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1) 갑: "먹고 살기가 힘들어 지면서, 국가를 믿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내 살길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87.7%
2) 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국가에서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	11.7%
3) 무응답 (Missing)	0.6%
3. 북한사람들은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1) 갑: "당과 정부가 국가를 잘못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47.9%
2) 을: "미국이 공화국 (북한)을 압살하려 하기 때문이다"	47.2%
3) 무응답 (Missing)	4.9%
4. 북한사람들은 중국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처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1) 갑: "북한이 중국보다 훨씬 못살고 있다."	83.4%
2) 을: "중국의 발전 수준을 잘 몰라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	15.3%
3) 무응답 (Missing)	1.2%
5. 귀하가 살던 북한의 동네 주민들이 백두산 구경을 갔다가 우연히 남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때 남조선 사람들은 북조선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 갑: 남조선 사람은 북녘 동포를 만나서 반갑다고 하며 이야기를 계속 하자고 할 것이다	60.7%
2) 을: 남조선 사람은 북조선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바로 자리를 떠나 버릴 것이다	37.4%
3) 무응답 (Missing)	1.8%
6. 북한의 일반 동네주민들은 다음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1) 갑: 당과 행정기관, 그리고 군대나 보위부의 간부가 되어 권세를 부리는 것	61.3%
2) 을: 장마나에 가서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	36.2%
3) 무응답 (Missing)	2.5%
7.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주민들 모두가 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함께 힘을 합치자" 고 한다면, 귀하가 생각하기에 동네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동네사람들은 서로 잘 믿지 않기 때문에 힘을 합치기 힘들 것이다.	40.5%
② 서로 믿지 않지만 살기 위해 어느 정도 힘을 합칠 것이다.	36.8%
③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일부 힘을 합칠 수도 있을 것이다.	14.1%
④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동네주민들이 힘을 합칠 것이다.	6.1%
⑤ 무응답 (Missing)	2.5%

Table 3. Continued

질문 내용	응답평균 (%)
8. 동네주민은 북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① 중국	70.6%
② 러시아	4.9%
③ 남조선	11.7%
④ 일본	2.5%
⑤ 미국	8.0%
⑥ 무응답 (Missing)	0.6%
9. 동네주민들은 언젠가는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① 좋다고 느끼고 있다.	85.3%
② 약간 좋다고 느끼고 있다.	10.4%
③ 약간 나쁘다고 느끼고 있다.	1.2%
④ 나쁘다고 느끼고 있다.	3.1%
10. 북한에서 동네주민들은 최근 3, 4년 동안 남북간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더 좋아졌다	20.9%
② 약간 좋아졌다	68.7%
③ 약간 나빠졌다	1.8%
④ 나빠졌다	2.5%
⑤ 무응답 (Missing)	6.1%
11. 동네주민들은 남조선 물건이나 남조선 사람에 대해 듣거나 본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16.6%
② 가끔 있다	49.1%
③ 없다	33.1%
④ 무응답 (Missing)	1.2%
12. 남조선에서는 북한에 많은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25.2%
② 조금 알고 있다	35.0%
③ 잘 모르고 있다	29.4%
④ 전혀 모르고 있다	9.2%
⑤ 무응답 (Missing)	1.2%
13. 동네주민은 남조선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원하고 있습니까?	
① 생각하고 있지 않다	14.1%
② 원하고 있다	64.4%
③ 약간 원하고 있다	10.4%
④ 원하지 않고 있다	8.6%
⑤ 무응답 (Missing)	2.5%

이것은 그 동안 있었던 북한 정권의 선전과 교육 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외국의 정보에 접하지 못하는 폐쇄적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다른 비교의 대상을 가지지 못하여 나타난 의식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탈북자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북한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외국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북한과 공산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하여 더 부정적입니다. 학력이 낮은 일반 인민들은 공산주의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응답한 사람들의 학력과 관련이 깊을 것입니다 (40대 여성, 대졸 학력)."

실제로 이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자들의 학력 차이에 따른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그것은 응답자 자신의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것이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조차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철저한 북한의 교육, 선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38.0% 정도는 북한이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 역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2)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국가를 믿고 가만히 있기 보다는 내 살길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북한 주민의 비율이 8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 삶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 동안 국가 및 집단 위주로 생각하고 있던 북한 사람들의 의식이 좀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 체제는 국가가 인민들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이고 자랑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그런 기능을 기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북한의 생활이 어렵게 된 이유를 생각하는데 있어 "당이 국가를 잘 못 운영해서"라는 의견이 47.9%, "미국이 공화국(북한)을 압살하려고 하였기 때문"이 47.2%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 동안 북한이 자신들의 가난을 절대적으로 미국의 전쟁 위협 탓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북한 자체의 국가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결과 역시 북한 체제에 대하여 좀더 비판적인 탈북자들이 응답한 것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북한이 중국보다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3.5%나 되었다. 과거 60년대에는 북한이 중국보다 더 부

유하게 살았으나 이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더 못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5) 백두산 관광에서 우연히 남조선 사람을 만났을 때 남조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반갑다고 하며 북한 사람들과 이야기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61.9%, "남조선 사람들은 북조선 사람들을 피하여 자리를 바로 뜰 것이다"라는 응답이 38.1%이었다. 즉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었다.

6)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네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잘 믿지 않기 때문에 힘을 합치기 힘들 것이다" 41.5%, "서로 믿지 않지만 살기 위해 어느 정도 힘을 합칠 것이다" 37.7%,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일부 힘을 합칠 수도 있을 것이다" 14.5%,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동네 주민이 힘을 합칠 것이다" 6.3%로 나타났다. 즉 북한 사람들은 당의 지시 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일 것이라고 북한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하여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모든 것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북한 사람들의 수동적 의식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상호 감시 체제가 엄격한 북한의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선동에 따라 당의 지시도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선동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자발적으로 움직일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북한 내에 중대한 사회적 변화가 생길 때 마을과 같은 큰 규모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로 잘 아는 친족이나 친구끼리는 소규모로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7) 당, 보위부 등 권력이 있는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과 장마당에 가서 자신이 직접 돈을 버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권력 있는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 62.9%, "장마당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이 37.1%로 나타나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국가를 중국(71.0%)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하였고 남한이 11.7%로 두 번째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른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음을 나타내 보이는 결과이다.

9) “언젠가는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좋다고 느끼고 있다” 85.3%, “약간 좋다고 느끼고 있다” 10.4%의 응답이 나타나 95%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최근 3, 4년 동안 남북한간의 관계는?”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더 좋아졌다” 22.2%, “약간 좋아졌다” 73.2%로 나타나 북한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동네 주민들이 남조선 물건이나 남조선 사람에 대하여 듣거나 본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주 있다” 16.6%, “가끔 있다” 49.1%로 나와, 전체적으로 남한의 물건이나 사람들에 대하여 접하게 되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남한이 북한에 많은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25.5%, “조금 알고 있다” 35.4%로 나타나, 60.9%의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지금 남한이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한다”가 66.0%, “약간 원하고 있다” 10.7%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하여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75% 이상이 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응답 결과 분석

다음 내용은 응답자들이 북한 내의 특정 인물을 상정하여 응답을 예상한 설문 1부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응답 내용과 응답자들이 상정한 북한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거나 해석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과만을 정리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없었다.

연령에 따른 의식 차이 (Table 4)

“통제가 없는 곳에서도 당의 요구대로 살 것인가?” 를 질문한 것에 대하여는 50대 이상은 68.2%(15명)가 “그렇다” 라고 대답한 반면에 10대, 20대는 43.6%(24명), 30대는 46.7%(21명)이 대답하여 좀더 낮았고, 40대는 26.3%(10명)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10.185$, $df=3$, $p<0.05$). 즉 상대적으로 50대는 체제 순응적인 특징을 보인 반면에 40대는 가장 체제 비판적인 특징을 보였다.

“기회만 된다면 북한을 탈출하려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이 10대, 20대는 49.1%(27명), 30대는 62.2%(28명), 40대는 67.7%(27명), 50대 이상은 76.2%(16명)로 나타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chi^2=6.046$, $df=3$, $p=.11$). 실제로 50대 이상은 북한을 탈출할 수만 있으면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는 있으나, 동시에 그런 위험을 직접 감수하려는 의식은 약하여 당의 지침대로 따라가며 살려는 양가적인 마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다” 라는 의견에 대하여 10대,

Table 4. 연령에 따른 설문 1부 응답결과

항 목		연 령				전 체	χ^2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통제가 없는 곳에서도 당의 요구대로 살 것인가?	그렇다	24 (43.6)	21 (46.7)	10 (26.3)	15 (68.2)	70 (43.8)	10.185 [†]
	그렇지않다	31 (56.4)	24 (53.3)	28 (73.7)	7 (31.8)	90 (56.3)	
지도부가 인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	37 (68.5)	35 (81.4)	22 (55.0)	12 (57.1)	106 (67.1)	7.624*
	그렇지않다	17 (31.5)	8 (18.6)	18 (45.0)	9 (42.9)	52 (32.9)	
기회만 된다면 북한을 탈출하려 할 것인가?	그렇다	27 (49.1)	28 (62.2)	27 (67.5)	16 (76.2)	98 (60.9)	6.046
	그렇지않다	28 (50.9)	17 (37.8)	13 (32.5)	5 (23.8)	63 (39.1)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다	그렇다	42 (79.2)	39 (86.7)	35 (87.5)	14 (63.6)	130 (81.3)	6.512*
	그렇지않다	11 (20.8)	6 (13.3)	5 (12.5)	8 (36.4)	30 (18.8)	
외국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가?	그렇다	36 (66.7)	38 (84.4)	31 (77.5)	19 (90.5)	124 (77.5)	6.907*
	그렇지않다	18 (33.3)	7 (15.6)	9 (22.5)	2 (9.5)	36 (22.5)	
전 체		55 (100)	45 (100)	38 (100)	22 (100)	160 (100)	

* : p<.1, † : p<.05

20대는 79.2%(42명), 30대는 86.7%(39명), 40대는 87.5%(35명), 50대 이상은 63.6%(14명)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6.512$, $df=3$, $p<.10$). 즉 30대, 40대는 남한에 대하여 좀더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10대, 20대도 그와 유사하지만, 50대 이상은 그런 의식이 좀더 약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일생의 대부분을 공산주의 교육 체제 하에서 살아왔으나, 인생의 경험이 더 풍부해 질수록 이들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좀더 온건한 정치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당 지도부가 현재 인민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10대, 20대는 68.5%(37명), 30대는 81.4%(35명), 40대는 55.0%(22명), 50대 이상은 57.1%(12명)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40대, 50대에 비하여, 10대, 20대, 30대는 좀더 자신들의 지도 집단이 국가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이 10대, 20대는 83.3%(45명), 30대는 91.1%(41명), 40대는 97.4%(38명), 50대 이상은 100%(22명)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 주민들은 출신 성분의 벽을 절대로 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기대빈도가 적기 때문에 통계검증은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가진 가장 큰 사회적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불만의 많은 것이 이런 사회적 상승이 출신 성분에 철저히 얽매인다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노예로 살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10대, 20대는 32.1%(17명), 30대는 35.7%(15명), 40대는 32.5%(13명), 50대 이상은 18.2%(4명)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50대 이상으로 가면 그런 걱정이 상당히 줄지만, 10대에서 40대까지는 그런 걱정을 30% 이상의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향후 통일 과정에 있어 남한 정부와 남한 국민들이 크게 고려하여야 할 점이다.

“외국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이 10대, 20대는 66.7%(36명), 30대는 84.4%(38명), 40대는 77.5%(31명), 50대 이상은 90.5%(19명)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6.907$, $df=3$, $p<.10$).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외국의 소식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10대, 20대가 보이는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의 특징에 대한 원인으로도 이야기 될 수 있었다. 즉 북한과 같이 극도로 통제되어 있는 사회에서 외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여부는 그들의 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비교적 체제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북한 체제의 필사적인 교육 효과와 함께 젊은이들이 외국 정보에 노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에 좀더 많은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젊은이들의 의식은 더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은 강력한 전체주의 사회 시스템과 교육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10대, 20대의 사회 반항적인 태도와 40, 50대의 사회 순응적인 태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자신들의 북한 사회를 더 많이 알게 되는 40, 50대가 사회에 대하여 더 비판적인 태도가 있으나, 동시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사회에 순응하는 태도도 동시에 있는 복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학력에 따른 의식 차이 (Table 5)

“당의 통제가 없는 곳에서도 당의 요구대로 생활을 하

Table 5. 학력에 따른 설문 1부 응답결과

항 목	학 력	전 체			χ^2
		고등중학	전문대학	대학교	
통제가 없는 곳에서도 당의 요구대로 살 것인가?	그렇다	39 (46.4)	8 (22.9)	21 (53.8)	8.067 [†]
	그렇지않다	45 (53.6)	27 (77.1)	18 (46.2)	
기회만 된다면 북한을 탈출할 생각이 있다	그렇다	54 (63.5)	24 (70.6)	19 (47.5)	4.607*
	그렇지않다	31 (36.5)	10 (29.4)	21 (52.5)	
남한에 흡수통일 되면, 북한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 것이다	그렇다	25 (29.4)	7 (20.6)	17 (44.7)	5.153*
	그렇지않다	60 (70.6)	27 (79.4)	21 (55.3)	
전 체		84 (100)	35 (100)	39 (100)	158 (100)

*: $p<.1$, †: $p<.05$

겠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도 고등중학교 졸업 학력자들은 46.4%(39명),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22.9%(8명), 대학교 졸업자들은 53.8%(21명)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8.067$, $df=2$, $p<.05$). 즉, 전문대학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의 벽을 넘지 못한다" 는 의식에 대하여 고등중학교 졸업 학력자들은 91.8%(78명),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94.3%(33명), 대학교 졸업자들은 87.2%(34명)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어도 상대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그런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만 된다면 북한을 탈출할 생각이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이 고등중학교 졸업 학력자들은 63.5%(54명),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70.6%(24명), 대학교 졸업자들은 47.5%(19명)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607$, $df=2$, $p<.10$). 여기서도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졸자 집단이 북한을 탈출할 생각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의 노예처럼 살 것이다" 라는 생각에 대하여 고등중학교 졸업 학력자들은 29.4%(25명),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20.6%(7명), 대학교 졸업자들은 44.7%(17명)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5.153$, $df=2$, $p<.10$). 즉, 대학 졸업자들이 통일 후 남한 사람들의 노예로 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등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학력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판의식이 적어서 비교적 체제 순응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들은 북한 내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서, 체제에 대하여 좀더 순응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어,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도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하였다. 반대로 전문대학 출신들은 대졸자들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정보에 따른 비판 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대졸자들에 비하여 사회적 신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좀더 체제 비판적이며, 개혁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였다.

탈북 연도에 따른 의식 차이

본 설문에 응답한 탈북자들의 탈출 연도를 세 시기로 나누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1997년 이전 시기

(56명),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햇볕정책을 쓰기 시작한 초기 단계인 1998년부터 1999년 시기(76명), 그리고 햇볕정책의 후기 단계인 2000년부터 2002년 시기(30명)로 나눌 수 있었다. 여기서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1997년 이전 시기와 2000년 이후시기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응답을 비교한 것이었다. 간접적으로나마 햇볕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집단의 숫자가 적고 질문 내용들이 간접적인 것이 많아 그 해석상에 주의를 요한다 할 수 있겠다. 두 시기의 집단 간 비교에서 흥미 있게 나타난 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상정된 인물이 "먹고살기 힘들지만 그럭저럭 지낼만 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97년 이전 집단에서는 그런대로 견딜만하다는 긍정적 응답이 57.1% 이었으나, 2000년 이후 집단에서는 75.0%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 시기가 95년부터 98년 사이에 있었기에 그 기간 중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강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런 식량난의 상황은 약간 완화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응답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생긴것으로 보인다. 둘째, 같은 정도의 어려움이었던 할지라도, 처음에 겪을 때가 개인적으로도 더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그 대책을 세우는 데 혼란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어느정도 식량난에 익숙해지면서, 사회 체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이런 응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경제적 상황은 매우 나쁘나 북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강인하게 생존해 나가고 있는 심리를 나타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상정된 인물이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이 97년 이전 집단에서는 80.4%, 2000년 이후 집단에서는 86.7%로 나타나 시간이 지나도 전체적으로 이런 의식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상정된 인물이 "북한이 남조선에 흡수통일이되면 남조선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이 97년 이전 집단에는 30.9%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42.9%로 나타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 사람들은 남한이 흡수통일을 하면, 자신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예처럼 살 가능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계속되며, 어쩌면 그것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최근 3~4년 사이에 북한 사람들은 가난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에 더 익숙해지고 있고, 반미 감정이나 전쟁의 가능성,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돈을 중시 여기는 현실적인 의식이 더 강해지고 있고, 남한 물건 등을 접하는 기회가 크게 늘고 남한이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통일에 대하여 좀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쪽으로 생각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는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당원 여부에 따른 의식 차이

응답자들이 설문 응답을 위하여 상정한 북한 내 사람들의 당원 여부를 보면 당원은 56명, 비당원은 104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당의 통제가 없는 곳에서도 당의 요구대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당원은 44.6%(25명), 비당원은 42.3%(44명)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원이나 비당원이나 그들이 그들의 당의 지침에 따르는 정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할지라도 북한 인민들의 생활이 어렵게 된 것이 미국의 공화국 압살 정책 보다도 북한 정부가 국가를 잘 못 운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 당원에서는 57.7%(30명), 비당원에서 46.1%(47명)로 나타났다. 즉 당원들이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하여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북한에서 당원들은 상대적으로 좀더 고학력자들이고, 외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국가 운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음으로 인하여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운영 방법에 대하여 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 주민들은 그들의 사상성을 더 높게 보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하여 한 탈북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북한에서 1960년대와 70년대까지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노동당원은 일종의 도덕가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즉 조국과 당, 그리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려는 의식과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런 의식이 많이 약화되었고, 90년대 들어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원을 보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들 출세하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입니다”(40대 여자, 대졸)

토 론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적 특징 몇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1) 많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선택은 옳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약 60%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 사회주의를 택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것은 여전히 “옳은 일” 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동독이나 루마니아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의견이었다.^{13,14)} 즉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체도가 인간의 빈부격차를 없앤, 좀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도덕적으로 옳은 체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북한과 같이 극도로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가운데 공산주의 선전만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북한에서의 경제적인 궁핍이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연결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을 주체사상으로 대치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를 주체사상과 하나로 만들어 놓았으므로 공산주의에 대한 불만은 곧 김일성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김일성을 인정하기에 그가 주장한 공산주의도 인정하는 좀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더 면밀한 연구가 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좌절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옳은 사회주의’ 를 선택한 그 조국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에 북한 주민들은 크게 좌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이제 매우 가난한 사회이고, 출신 성분의 벽을 결코 넘지 못하는 사회이며, 부정부패가 많은 사회이고, 당 간부들이 북한 사회의 어려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도자인 김정일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당의 선전대로 미국의 공화국 압살 정책 때문 이라기보다도, 당이 국가를 잘 못 운영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비판적 의식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당의 강제적 통제가 없다면

당의 지시대로 따를 생각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능하다면 북한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산주의 사상 자체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북한의 현실을 괴로워 떠날 수 있으면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3) 북한 주민들의 공산주의적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국가가 주민들의 모든 의식주 생활을 보장해 주던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민 각자가 자신의 살길을 찾아야만 하였고 그런 현실 속에서 개인주의적 의식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공산주의적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여기다가 원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학습된 수동성이 더해지고, 강력한 상호 감시 체제에 따른 상호 불신 등이 겹쳐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능동적이고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스스로에게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결국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이 강해져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되던 권력보다도 현실적인 돈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하여 매우 양가 감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보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즉 남한은 민족적 자부심과 당당함을 잃어버린 형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남한이라는 나라가 자신들보다 현실적으로 더 잘 살고 있고, 북한에서 남한의 좋은 물건들도 많이 보게 되었으며, 남한이 지금 북한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남한의 지원에 대하여 그리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남한이 북한을 지원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거보다는 남한에 대한 인상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남한과 통일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신들이 남한 사람들의 노예처럼 살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으나, 그런 생각이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이며, 이제 그것에 더 의존하여 현재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앞으로 잘살고 싶다는 식의 매우 복잡하고 양가 감정적(ambivalent)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북한 주민들은 연령, 학력에 따른 의식의 많은 차이가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연령과 학력에 따른 의식의 차이가 매우 많이 있을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었다. 물론 본 연구가 큰 연구 집단을 가지고 시행한 연구가 아니므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젊은 세대일수록 좀더 애국적이며 동시에 당과 국가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학력에 있어 대학 졸업자들이 좀더 보수적이고 현실 유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보았다. 이들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의 여론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므로 그들의 그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미감정 등에 대한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최근 3~4년 사이에 북한 사람들은 남한 물건 등에 접하는 기회가 크게 늘고, 남한이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통일에 대하여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이상과 같은 의식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북한 사람들이 새로운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민족주의적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 사람들도 경제적 성취와 월드컵 등을 통하여 이러한 민족주의적 공동체 의식이 매우 고양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통일 과정이 남북한 사람들 모두의 그런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높이는 경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 후 있게 될 많은 갈등들을 극복하려면 당장의 이익과 부의 분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인내하고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이 남과 북 양쪽에 다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남과 북 양쪽에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남과 북의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도록 개발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 주민들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 자본과 능력적 측면에서 남한 출신 사람들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공산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북한 출신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큰 모순과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¹⁵⁾ 따라서 이들 북한 출신 주민들에게 사회주의와 그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에 대한 이론 제시나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등을 통하여 접근되기도 하겠으나, 동시에 실제로 이런 북한 사람들의 심리와 정서를 이해하는 정책의 실시와 그에 대한 설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에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통일 이후에 나타날 북한 출신 주민들의 좌절과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에 따른 큰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에 따른 좌절은 북한 출신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 통일만 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남한 사람들 수준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식의 큰 기대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게 좌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은 그러한 좌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단계적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심리적 차원에서 남한 출신 사람들의 북한 출신 사람들에게 대한 겸손한 태도, 겸손한 생활 자세, 상호 인정과 존중과 같은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 주민들의 심리와 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본 연구와 같은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나 그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그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양과 그 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많은 한계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연관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많은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성공적인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 심화하여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 : 북한 · 탈북자 · 통일 · 북한주민의식.

■ 감사의 글

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탈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 1) 김명세. 변동의 관점에서 본 1990년대 북한 주민의식 연구 [석사학위]. 서울: 연세대학교;2002.
- 2) 김병로, 김성철. 북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연구보고서 1:1998.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3)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사회 통제체제. 연구총서 11:1999. 서울: 통일연구원.
- 4) 전우택. 집단기억현상을 통하여 본 북한 사회 이해. 사회정신의학 2000;5(2):179-196.
- 5) 정영철. 북한사회통제 매카니즘의 변화와 특징. 통일문제연구 1997;9(2):51-74.
- 6)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 서울: 나남 출판;1995.
- 7) 서재진. 북한의 사회 심리 연구. 연구총서 15:1999. 서울: 통일연구원.
- 8) 최평길. 북한주민의식조사연구. 연세대학교;1990.
- 9) 전우택. 탈북자들을 통하여 보는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전망. 통일연구 2002;6(1):47-61.
- 10) 전우택, 윤덕용.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 조사보고 2001: 서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11) 민성길, 전우택, 윤덕용. 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발달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9;38(5):1047-1062.
- 12)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 북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7;36(1):145-161.
- 13) 전우택. 독일 통일 이후 그 심리적 갈등과 극복 방안: 구 동독인들과의 면담 기록을 중심으로. 전우택 저,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도서 출판 오름;2000. p.181-229.
- 14) 전우택, 민성길.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루마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2002;6(1):155-223.
- 15) 이우영.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연구총서 27:2000. 서울: 통일연구원.